

##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 교육기관 선정

- 2개 과정(한옥설계과정, 한옥시공 관리자과정)에 4개 기관 선정... 7월부터 교육 실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한옥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‘23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’을 전담할 4개의 교육기관을 선정하였다.
  - 한옥설계과정 교육기관으로 명지대학교, 전남대학교, 전북대학교, 한옥시공 관리자과정 교육기관으로 전북대학교를 선정하였으며, 각 기관은 6월 중 교육생 모집공고를 거쳐 7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.
  -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\*은 한옥건축에 대한 대중적 수요를 충족하고 전통문화로서 가치를 지닌 한옥을 확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'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.
    - \* 총 1,3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, 올해는 160명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목표
-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교육생들은 한옥뿐만 아니라 현대기술을 접목한 신한옥 기술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  - 한옥에 관심있는 건축사, 건축분야 기술자 등 건축관련 종사자는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, 교육생 선발 절차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\*에서 확인하거나 유선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.
    - \* 명지대(www.ice2.mju.ac.kr, 031-323-6401), 전남대(www.jnu.ac.kr, 062-530-0879), 전북대(www.jbnu.ac.kr, 설계: 063-219-5221, 시공: 063-561-5206)
-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“전통적인 멋과 편리함을 겸비한 우수한 한옥이 널리 보급되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국토부는 한옥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건축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박기범 (044-201-3775)
	건축문화경관과	담당자	사무관	김미경 (044-201-3779)

□ **추진 배경**

- 최근 우리 전통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를 뒷받침할 한옥 전문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
  - 한옥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부족하고, 깊이 있는 전문교육\*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옥 전문인력 양성·배출에 한계
  - \* 대학은 서양 건축 위주의 교육, 한국 건축사 과정은 깊이 있는 한옥 교육의 한계  
한옥 시공은 단기간 목공교육을 받은 기능인력이 대부분으로 공정관리, 수량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 기술인력 부족
- 한옥의 대중화, 현대화 및 산업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옥 전문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

□ **지원 및 교육내용**

구분	한옥설계 전문인력	한옥시공 관리자
지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65백만원</li> <li>* 우수기관(명지대) 135백만원</li> <li>* 일반기관(전남대, 전북대) 115백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15백만원(전북대)</li> </ul>
교육인원 및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육기관별 40명 내외</li> <li>* 건축사 건축사무소 종사자, 건축분야 기술자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육기관별 40명 내외</li> <li>* 한옥교육(3개월이상)이수자, 건축 기술자 등</li> </ul>
교육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개월 이상(160시간 이상)</li> <li>* 교육(주8시간*19주)+봉사활동 (8시간)</li> <li>* 심화과정 110시간 이상 편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개월 이상(160시간 이상)</li> <li>* 교육(주8시간*19주)+봉사활동 (8시간)</li> <li>* 심화과정 110시간 이상 편성</li> </ul>